

2022년 10월 30일

금문교회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예배 GGPC 505th Reformation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2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s way,
though the mountains be moved into the heart of the sea,
3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tremble at its swelling. Selah
4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holy habitation of the Most High.
5 God is in the midst of her; she shall not be moved;
God will help her when morning dawns.
6 The nations rage, the kingdoms totter;
he utters his voice, the earth melts.
7 The Lord of hosts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Selah
8 Come, behold the works of the Lord,
how he has brought desolations on the earth.
9 He makes wars cease to the end of the earth;
he breaks the bow and shatters the spear;
he burns the chariots with fire.
10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11 The Lord of hosts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시편 46:1-11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제505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세 가지 주제로 실시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믿음과 은혜와 성경 대신에 물질과 인본주의의 늪에 침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금문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새로운 개혁 물꼬를 트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계획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사도행전 Acts 13:44-49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를
But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began to contradict what was spoken by Paul, reviling him.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For so the Lord has commanded us, saying: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nd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began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And the word of the Lord was spreading throughout the whole region.

할렐루야!

오늘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반박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설치하여 종교개혁을 실시한 지 제505주년 되는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반대했던 95개 중 처음 10 가지를 소개합니다:

-1. 회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고해성사는 안 된다.

3. 육체의 정욕도 죽여야 한다.

4. 죄 된 자기를 죽을 때까지 죽여야 한다.

-5. 교황은 용서권한이 없다.

6. 교황이 사죄해도 죄가 남아 있다.

7. 하나님께서 사죄하신다.

8. 죽은 자에 대한 사면은 안 된다.

9. 성령님께서 자비를 행하신다.

10. 연옥의 회개는 거짓이다.

1. When 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said, “Repent” (Mt 4:17), he willed the entire life of believers to be one of repentance.

2. This word cannot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the sacrament of penance, that is, confession and satisfaction, as administered by the clergy.

3. Yet it does not mean solely inner repentance; such inner repentance is worthless unless it produces various outward mortification of the flesh.

4. The penalty of sin remains as long as the hatred of self (that is, true inner repentance), namely till ou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5. The pope neither desires nor is able to remit any penalties except those imposed by his own authority or that of the canons.
6. The pope cannot remit any guilt, except by declaring and showing that it has been remitted by God; or, to be sure, by remitting guilt in cases reserved to his judgment. If his right to grant remission in these cases were disregarded, the guilt would certainly remain unforgiven.
7. God remits guilt to no one unless at the same time he humbles him in all things and makes him submissive to the vicar, the priest.
8. The penitential canons are imposed only on the living, and, according to the canons themselves, nothing should be imposed on the dying.
9. Therefore the Holy Spirit through the pope is kind to us insofar as the pope in his decrees always makes exception of the article of death and of necessity.
10. Those priests act ignorantly and wickedly who, in the case of the dying, reserve canonical penalties for purgatory.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나온 개신교회는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하 통계는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전을 참고했습니다. 2022년 “크리스찬”을 전 세계의 31.11%로 추산합니다. 이중에 50%는 가톨릭, 37%는 개신교, 정교회는 12%로 추산합니다. 개신교인은 대략 8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64 billion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총 인구 중에 약 10% 조금 넘는 인구가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수는 그보다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2019년 현재 43%가 개신교인으로 보는데, 2009년에는 51%였습니다. 사실 주일예배 참석은 대단히 적습니다. 10%정도입니다. 주일예배 참석자들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또 얼마나 될까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의 개신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으로 보니, 인본주의 문명으로 지극히 발달한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으로 보니, 스스로 개혁하여 기록하지 못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밖과 안, 둘 다 문제일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은 그 주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505년이 흐른 지금의 개혁교회는 이 중심 주제를 지키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증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영생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를 것이다” :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섰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무리” 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 “은혜,” 그리고 “성경” 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가 이방인들 중에서 오히려 빛난 것을 주목합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For so the Lord has commanded us, saying: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사도행전 Acts 13:47

교회는 날마다 새로 개척되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이방인의 땅, 새로운 지경으로 복음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은 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Romans 9-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그의 소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육신으로 “동족” 일 뿐 아니라, 영으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택된 백성(선민) 아닙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my kinsmen according to the flesh. They are Israelites, and to them belong the adoption, the glory, the covenants, the giving of the law, the worship, and the promises.
로마서 Romans 9:3-4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본래 “안” (IN)이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밖” (OUT)을 자처한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복음의 빛에서 볼 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은 이방인을 향할 때입니다. 박해하는 내부를 벗어나 “환영하는” 외부로 향해 전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And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began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사도행전 Acts 14:48a-b

그러나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핍박은 “안” 과 “밖” 모두에서 왔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On frequent journeys, in danger from rivers, danger from robbers, danger from my
own people, danger from Gentiles, danger in the city, danger in the wilderness,
danger at sea, danger from false brothers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26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임하는 핍박은 안에서 밖에서 모두 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말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교회는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안에서 밖으로, IN and OUT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천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택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타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전도의 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cling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Nevertheless, know thi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누가복음 Luke 10:1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누가복음 Luke 10:13

예수님께서서는 우상숭배로 유명한 이방 땅, 곧 두로와 시돈을 지적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새다가 회개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그 모든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 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고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밖” 으로
나아가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겨우 제자들이 예수님 아래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땅
끝까지 가라!” 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사도행전 Acts 1:8

그리고 예루살렘교회가 성령님을 받아 충만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사도들이 나갔고, 다메섹과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도 교회들이 개척되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1880년대에 그 물결이 강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지금보다는 미국이 훨씬 교세가 강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선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북한선교가 있습니다. 고국의 50%에 해당하는 땅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한반도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 아버지 조종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한 교회 23년 개척하여 사역하는 동안 22개 지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님 목회에서 맺은 가장 큰 열매입니다. 교회가 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약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교회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후파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콜롬비아 선교에 집중합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힘에 지나서 결국 기진맥진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목회사역의 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1994년 개척 이래 가장 약한 때는 아닙니다. 더 약할 때도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선교와 개척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들대로 사역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몫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부자가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더 많은 자녀를 낳아 따뜻한 사랑 가운데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가난한 집안에 7-8명의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율이 높아 걱정이며 기도제목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는 돈의 여부가 아닙니다. 참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됨을 증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든 자 믿더라.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사도행전 Acts 13:48c

종교개혁자들 중에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있습니다. 그는 “예정설” (Predestination)을 주장해서 유명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예정한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강요>(The Institutes)의 한 구절입니다:

By predestination we mean the eternal decree of God, by which he determined with himself whatever he wished to happen with regard to every man. All are not created on equal terms, but some are pre-ordained to eternal life, others to eternal damnation; and, accordingly, as each has been created for one or other of these ends, we say that he has been predestinated to life or to death.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stminster Press, 1960), 3.21.5.

칼빈은 그의 논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 중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오늘 사도행전 13:48c 말씀에 기초한 것이 분명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써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And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3c

사람의 노력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된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에서 났고, 그것은 “아멘신앙” 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는 사도행전 27:25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사도행전 Acts 27:25b

믿음이 그러하며 영생이 그러할진대, 삶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이것은 “복음” 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은 “은사” 요 “은혜”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옵션” 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1 Timothy 2:4

우리는 “복음” 을 전파해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디모데후서 2 Timothy 4:2a

핍박하는 자가 일어나면 그를 피하여 나갑니다. 배가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나가는 법 아십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환영하면 거기 머물며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핍박하면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여기서 저기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Spread the blessed tidings all the world around. Tell the joyful news wherever man is found. Who-so-ever will may come.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Send the proclamation over vale and hill.
'Tis a loving Father calls the wanderer home. Who-so-ever will may come.
찬송가 520

505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온 세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써, 온전한 은혜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로 핑계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 전진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파의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